

1989 12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권사 취임 예배)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잠언

‘잠언’이란 말은 격언과 같은 표현이나 격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의 특징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 하나님의 잠언을 아는 사람은 간단 명료하게 사고도 하고 표현도 하고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기록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대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본다.

‘솔로몬’의 뜻은 화평하다. 평강하다는 뜻으로 솔로몬은 그의 이름과 같이 매우 조용히 산 사람이다. 평안을 구가하며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다.

다윗은 그 성격대로 그의 생애가 그러한 것처럼 그가 써 놓은 글은 참으로 전투적이고 그 고난에서 헤엄쳐 나오는 간절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면이 그의 시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잠언에는 평안할 때 준비해야 되는, 평화시에 배워야 되고 평화시에 단련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은 왕중의 왕 다윗의 아들로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왕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훈계를 주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선생이 되어 주는 한 나라의 지도자이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의 훈계를 받도록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2-4).

잠언을 배우게 되면 지혜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게 되며 명철한 자는 모략을 알게 된다(5-6).

12월의 기도제목

1. 위임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2. 원로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3. 장로님과 교역자들의 참된 헌신을 위하여
4. 교회학교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5. 제직들의 충성을 위하여
6.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7. 복지마을 건립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떠나지 않게하고」(3 : 3)

채워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모르는 사이에 때 묻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채워야 할 것 몇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 마음에 채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로 채우고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채우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되 재물을 가지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받아야 할 복을 겸해서 주십니다.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수를 주시되 평강까지 주시니 영육이 아울러 복을 받습니다. 장수와 평강은 또한 하늘나라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문설주에 붙이고 옷자락에 써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 저것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만 지키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교회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동정하는 마음이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입니다. 마음은 안움직이는데 발과 손이 움직이면 위선자입니다. 인자 뿐 아니라 진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발에 진리가 끊어지면 아니될 것이고 생각에 진실이 끊어지면 아니될 것이고 행위에 정직함과 올바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 인자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기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중 윤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3 : 6)

자기 포기 여호와를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고 합니다. 반심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놓고 사람들은 공치사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뿐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경륜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복중의 복이요 최대의 복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열번 들어도 피곤하지 않는 말이고 스무번 들어도 양약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칫 교만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와 꾀로 무엇을 행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이것이 몸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소산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종교신앙은 물질과는 무관한 것 같이 여겨지기가 쉽습니다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것이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물질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돈 관리하는 법, 돈 사용하는 법, 돈 쓰는 법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선교와 교육과 구제를 위해서 물질이 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결국은 창고가 가득히 창고 가난을 면하게 되고 줍들에 포도즙이 넘치게 됩니다. 재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시다.

기도 우리의 꾀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김창인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 하옵소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3 : 13)

장수의 복 솔로몬은 지혜를 부지런히 찾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마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혜를 획득해야 되고 획득할 뿐 아니라 지혜를 금, 은, 돈을 주고 사야 할 만큼 값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지혜를 찾은 자, 지혜를 얻은 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초월적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행복 이상 그보다 훨씬 초월적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은을 얻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됩니다만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낮고 정금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보다 이 지혜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행복과 세상의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며 초월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지혜에는 세상의 모든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생명은 모든 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이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말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최선의 방법이 결국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장수는 영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1천번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지혜와 다른 모든 것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세상의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바로 보살피게 하옵소서.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3 : 16)

부귀의 복 지혜를 얻은 자는 부귀의 복을 얻게 됩니다. 부귀는 부요와 존귀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요한 자는 귀하지를 못하고 귀한 사람은 부요하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부귀를 한꺼번에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부귀가 얼마나 귀한지 부귀를 좌편 손에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편 손에는 장수의 복을 주고 좌편 손에는 부귀의 복을 주시니 세상의 복을 다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수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즐거움과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이는 부귀가 아무리 많고 수가 아무리 길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병들어 70~80년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얻는 복은 또한 낙원의 복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에덴동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낙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시고 지혜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을 얻은 자가 되니 또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자는 권능을 갖고 살게 되고 부와 장수와 명예와 존귀를 얻게 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재화를 다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 땅위에 부귀와 장수를 누리며 권능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가 이러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 능력있는 삶을 살시다.

기도 구하옵나니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3 : 21)

영혼의 생명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70인 역에는 충고와 사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충고라 했고 근신을 사상, 인간이 갖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 성경에는 교훈과 충고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속성이 다양한데 그 속성 가운데 근신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혜의 속성입니다.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서 지혜 따로 근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처럼 이 지혜안에 근신이 포함되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하는 근신을 가져 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상이 올바르게 되어서 생각이 바른 사람은 자기 몸을 조심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근신'처분을 가진 사람은 외형적인 몸가짐만이 아니고 마음이 변해야 충고를 받아 들이고 중심이 변해야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죄를 방어해 줍니다. 우리의 길이 안연해 집니다. 우리의 발에 거침돌이 없습니다. 넘어짐을 피하게 해 주시는 죄를 방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 내 마음에 오셔야 죄를 방어할 수 있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는 죄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세상에는 육신은 펄펄 날라 다니고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얼굴이 캄캄합니다. 낙심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에 우리에게 새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분이 내 속에 와 계신 지혜 곧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안심과 평강을 얻게되고 낮의 활동과 밤의 휴식을 지킬 것이며 곤경과 위기에서 보호하실 것이며 지켜 주십니다.

※※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이 와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곤경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 창졸간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거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3 : 33)

정직 · 겸손 · 지혜 세 종류의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거짓말을 모르고 이웃에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자신의 결점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지은 죄를 자인하고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자리가 교만의 자리입니다. 박운선 목사님이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에서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제자들의 축하연에서 하신 답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고목과 같이 쓸데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학들에게 큰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무익한 종으로 소이다만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은혜를 받을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뜻을 안 다음에는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먼저 가정생활의 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가정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땅위의 행복 중에 참 행복입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안락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 병중에 쓰러져 유명한 격언처럼 남긴 말은 '나에게 두달동안만 평안한 가정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였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가정이 순결해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기쁨과 애정과 평화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저주스런 일만 있어서는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들이 또 받을 복은 존경과 칭찬입니다.

***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준비는 안되고 목소리만 높이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봅시다.

기도 오늘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3 : 35)

미련한 자 무지한 노새에게는 매 밖에는 돌아갈 것이없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영광이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에 굴복을 한 사람입니다. 한가지 죄에 굴복을 하면 다른 일곱가지 죄가 같이 들어 옵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실재를 멸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천대를 받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욕된 삶입니다. 자기의 난 날을 저주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악하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네가지 중요한 미덕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지불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27-28절). 품군의 삶을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소의 입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을 시킨 다음에는 응당의 댓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을 한 상인의 빚을 갚고 정당한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부채를 탕감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도적놈의 심보입니다. 부채를 갚는 일에는 물질적인 부채만은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궁핍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27절). 둘째, 이웃에 대하여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살거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평화를 좋아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넷째,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매사에 하나님의 실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을 귀중히 여깁니다.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뿐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4 : 1)

지혜 유산 땅위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여러가지입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나 더 좋은 것은 명예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유산, 지혜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물려주는 신앙 유산은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또 표현이 되었습니다. 훈계와 명철, 도리, 법, 말,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렸을 때 들은 한 마디, 다 못들은 척하고 안듣는 척하고 집을 뛰어나가는 자식이라도 그릇등에 대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신 것이 자녀에게는 큰 양식이 되고 그 자녀의 삶에 큰 빛을 얻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의 훈계를, 명철을, 도리를, 법을, 말을, 명령을 수없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은 오십 육십이 되어서 벌어도 어려서 번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고 재산과 명예는 세상에서 늦게 출발을 해도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나 이 신앙의 유산은 어려서부터 쌓이고 쌓인 것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도 그 사람의 정신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가 닳여지지 않은 사람은 집을 하루 아침에 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하루 아침에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정으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낫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되는 것이 천번 낫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혜를 물려주려면 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신앙 유산은 혈통으로나 상속으로 물려지지 않습니다. 지키고 가르치므로 물려질 수 있습니다.

****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훈과 모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려는 모습을 쉬임없이 보여주는 부모가 됩니다.**

기도 유산으로 물려줄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훈계와 모범으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4 : 14)

돌이켜 떠나라 본문에는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등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다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죄에게 끌려 갑니다. 죄 근처에 가게 되면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다보면 결국은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특한 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특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상습적으로 악을 반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찌다 넘어져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해서 악을 행합니다. 자기가 알면서도 행하는 일입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빠를 것 같으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흉내내서도 안되고 그 길 근처에서 우물쭈물 해서도 안되고 아예 피해 버려야 합니다. 피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을 빨리 떠나지 않고는 죽습니다. 이 경고장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특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 같고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존경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 악한 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함을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음료를 삼습니다. 이 악인과 교제하면 결국은 피차에 망하고 남은 것은 추문과 위협으로 빠져 망할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해가 길고 명예가 길고 축복의 때가 길고 즐거움의 때가 길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첩경과 지혜로운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단하는 순간에 어느 쪽으로 결단하느냐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패신자들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10 (주일) 선을 행하는 것

찬송 265 성경, 잠 4 : 20-27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4 : 21)

말씀의 원리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악을 피하느라고 악과 싸우느라고 선은 하나도 못해보고 매일 같이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날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우느라고 상처만 받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일은 악과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령과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설교시간에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활용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되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내일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늘 주어진 기회지 다음의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보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쉽게 떨어버리면 안됩니다. 가시밭과 돌짜밭과 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눈에서 떠나가게 말고'는 잘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검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에 맞춰서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나의 지배원리로 삼아서 그 영향력이 온 몸에 퍼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실용주의적인 원리가 아니고 말씀의 원리를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모든 행동지침을 받아낼 때에 일이 잘 진행됩니다.

* *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사람들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천하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행함의 열매가 없습니다. 철야기도와 부흥회가 무색하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을 행합시다.

기도 악을 피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금년 내로 2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잠 4 : 22)

생명의 양식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울지도 못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22절). 생명이 된다는 말은 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을 먹으면 육체에 건강이 옵니다. 몸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으라는 말은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병원만 가고 약방만 쫓아다녀 보아야 계속해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감사헌금도 바치고 십일조도 열심히 바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다 바치면 보약을 백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면 병은 다 물러갑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참 기쁨이 생기면 암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 또는 해를 갑자기 서쪽으로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절차를 밟아 베푸십니다.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면 육신의 혈액이 달라지고 모든게 바뀌어지니 병이 낫지 않을 리 없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네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눈이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리를 보고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혀를 지키라 하십니다. 말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꾀술과 사곡을 입술에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지킬 것은 발입니다. 발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지킬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인격의 지성소요 생활의 중심이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죄를 날마다 털어내야 합니다.

**** 회개와 갱신과 거룩으로 점점 들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충성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온유하고 주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꾀술과 사곡을 입에서 재하고 바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영혼이 살고 육신의 건강도 누립니다.**

기도 눈과 혀와 발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1만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건데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5 : 9)

선을 심으라 빼앗기는 일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주는 것은 좋으나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당해서는 안되고 있어도 안됩니다. 본문은 세가지를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존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귀하고 복된 존영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존영을, 성도의 존영을, 하나님의 자녀의 존영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존영을 빼앗기는 이유는 죄때문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수한을 빼앗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잔포자, 난폭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살인자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무절제 때문에 수한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고 음탕하고 방종한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므로 인하여 고귀한 수한을 빼앗기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는, 재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유산, 노력의 소득으로 얻은 재물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모든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인데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의 무지와 실수로 어리석음으로 재물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악중 게으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종과 게으른 종은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나 힘써 얻은 재물을 빼앗겨선 안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잘못 사용하다가 재물을 빼앗겨서도 안됩니다. 넷째는, 후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의 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심어야 하겠습니까.

**** 노후에 사업의 낙, 친구의 낙, 자녀의 낙, 모든 낙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선을 심음으로 후일을 준비합시다.**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영과 수한과 재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님을 부르시어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루시옵소서.

「너는 네 우물에서 마시며」(5 : 15)

오염된 악을 제거 존영과 수한과 재물과 후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염된 악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가정이 신성해야 합니다. 남편을 배우자로 감사하고 아내로 만족하고 기쁨과 위안과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내 우물에서 마셔야지 남의 우물에서 마시면 안됩니다. 우물은 고대 사회에서나 성경에서 아내를 말해 줍니다. 마시는 것은 충족감을 주되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뱀은 에덴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신뢰와 평화와 사랑과 존경과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할 가정이 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둘째,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샘물과 시냇물, 도랑물은 자녀를 지칭합니다. 원천에서 흘러나온 분신, 자녀의 무수함 같이 강물처럼 풍성하고 훌륭한 자손이 기쁨입니다. 셋째, 유덕한 아내의 모습을 항상 연상하면서 금지된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암사슴과 암노루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매력있는 여인을 상징하는 말쑥입니다. 아내는 매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킬 때에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끗한 가정이 될 때에 힘을 얻게 되고 능력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이 지배케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실해 집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 봉사합니다. 충성 봉사의 마지막 극치는 순교입니다.

※ 악을 치료하는 방법은 불의를 떠나는 것입니다. 불의는 혼계를 받지 아니하는 것과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죽음과 혼돈을 몰고 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눈 앞에서 살므로 불의를 벗어나버려야 합니다.

기도 혼돈과 무질서를 불러온 불신앙과 불의를 벗어나버리게 하시고 여와의 목전에 살게 하옵소서. 파라과이에서 헌신하시는 김재창, 안석렬 선교사님을 붙들어서 사용하시옵소서.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6 : 2)

재정 보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종종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나 물질로나 혹은 자기의 인격을 놓고 다른 사람을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본문을 오해하여 보증을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기 쉬우나 본문의 말씀은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사랑과 신중한 마음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담보를 섰던 일도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담보를 서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담보는 게으름만 불러 일으키고 게으름은 결국 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재정 보증, 빚보증을 함부로 서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얼굴이 좀 뜨겁고 민망한 것 같아도 꾸을 때는 꾸어버려야 합니다. 인정과 사정과 의리와 위치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자기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잘못했구나 하는 판단이 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빨리 빠져 나와야 합니다. 신속히 빠져 나올 뿐 아니라 나와서는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루가 사냥군의 손에서 벗어남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겸손히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겸손한 것이 곤란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결론은 비겁하게 빚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도망이나 치고 담보 안해 주려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립성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행복한 생활의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다른 사람에게 의존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기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게 하옵소서.
유재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칠레 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개미에게로 가서…지혜를 얻으라」(6:6)

부지런한 자 본문에는 개미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기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개미의 특징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부지런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추수하는데 먹을 것을 여름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스려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미에게도 질서가 있지만 억지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 힘에 맞는 한도의 최선을 말합니다. 개미에게 충현 예배당같이 웅장한 빌딩을 지으라 하면 백년이 걸려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지을 수 있는 것은 개미집을 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개미는 한톨의 곡식을 물고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추력을 물고 가는 법도 없고 개미가 비행기를 제작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능력에 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개미는 또한 근면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사람의 발바닥 밑으로 다니고 돌짜발 밑으로 다니고 흙밑으로 다닙니다. 밟히면 죽을 것인데도 근면합니다. 용기와 인내와 협동심을 가진 것이 개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한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망하게 음식덩이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개미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개미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되 기회를 선용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곤핍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신앙의 ABC입니다. 부지런은 영적인 힘이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기도 나태가 습성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옵소서.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에게 강건함을 더 하옵소서.

「...악한 자는 그 행동에 쾌활한 입을 벌리며」(6 : 12)

악한 자 본문은 악한 자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악한 자는 행동에 쾌활한 입을 벌리며 악을 꾀하여 다툼 일으키는 자입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첫째, 태도와 몸짓과 언행에 있어서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말이 악한 자는 거짓을 말하고 왜곡된 말을 지어내서 합니다. 행동이 악한 자는 부정한 자를 말합니다. 행동이 의롭지 못한 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모호한 것입니다. 지성인일수록 더합니다. 악한 사람의 태도는 남을 중상모략하고 자신을 높이 세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태도입니다. 악한 사람의 정신 상태는 비뚤어져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을 끌어냅니다. 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므로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이 제일 먼저 지적된 이유는 모든 죄에 깔려있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허위, 위선, 간사, 가증이 다 거짓 혀에서 나옵니다. 악마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말하기 어려울 때는 거짓말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는 폭력입니다. 잔인성, 흉악성,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을 계획하는 것,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다 폭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넷째, 거짓되고 망령된 증인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간자입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요 평강의 종교이지 이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충성을 가장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고 단물을 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쓴물을 냅니다.

** 폭력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폭력, 정치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신적 폭력, 육체적 폭력, 이 모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도 악을 버리고 선을 쫓게 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준교 선교사님을 통하여 애굽의 영화를 회복하옵소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7 : 22)

미련한 자의 길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길은 죄의 길, 죽음의 길이고 한 길은 의와 생명의 길입니다. 죄의 길은 첫째로 미련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7-8), 지혜없는 자가 가는 길이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고 주의하지 아니하는 길이고 할 일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고 나쁜 친구를 쫓아 가는 길이고 미련한 자가 가는 길입니다. 7절은 젊은이가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방황하는 모습. 미련한 자의 걸음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사람은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헤매고 다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록 주신 것인데 밤에 방황하는 모습은 죄의 길, 빛을 싫어하는 길입니다. 둘째, 수치의 길입니다. 셋째, 거짓과 위선과 사기의 길입니다. 넷째 쇠약과 패배의 길입니다. 다섯째,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죄가 있는 길이고 죽음이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움직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는 엄청난 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서구의 물결이 크게 깊이 몰려들므로 파리의 유행이 일주일 이내에 서울 장안에 도입이 되는가 하면 미국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 젊은이에게 홍수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악한 것은 있는대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물결이 도시를 무섭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나 민주화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위기를 당하고 군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겉으로 생겨지는 위기지만 우리 사회가 속으로 끓고 썩고 무너지는 일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패역의 길, 죄와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인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 아담 이래로 사회는 늘 타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의 삶으로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죄의 홍수에 떠내려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 지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 죄의 타락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훈련중에 있는 팀 선교단원들을 붙드시옵소서.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7 : 1)

특효약 죄를 이길 특효약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채면 갖고도 인내를 갖고도 교양을 갖고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활동해야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첫째 조심하는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3).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명령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간직하고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의무에 대한 비망록 처럼, 오른 손의 인장 반지처럼 약속과 위엄이 기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죄의 길로 끌려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발걸음을 중단하고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육은 육으로 이길 수 없고 영으로 싸워야 하는데 영의 힘이 없으면 제 몸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숭고한 사랑의 길로 가라고 권면합니다(4절). '지혜에게 내 누이라 하며'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지혜를 가슴에 담고 자기 누이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누이와 친족은 깊이 교제하고 친숙히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명철도 분별력입니다. 명철을 사랑하는 것은 숭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가야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일입니다. 지혜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데 불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불을 가슴에 담고 데지 않을 사람이 없고 불을 밟고 발을 데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현명한 교양의 길을 가라합니다(5절). 말씀이 우리를 방어해 주고 지혜가 우리를 무장해 주고 죄로부터 지켜 주고 있는데 이것은 교양인의 길입니다.

****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양인입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발을 간다는 말입니다. 마음 발을 굳은 대로 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모두 교양인이 되어 마음을 다듬고 쟁기질 합시다.

기도 우리의 마음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옵소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8 : 1)

지혜의 음성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주 쉽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뒷전에서 부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쉽게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부르고 언제든지 부릅니다. 이것은 계시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드러내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결심도 생깁니다. 지혜는 큰소리로 들려 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매력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무지와 무능을 알고 지혜를 찾아가되 소원만 있지 만나지도 못하고 지혜를 찾다가 도중 하차하고 낙심만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원은 있어서 예수를 잘 믿어야겠는데 하면서 기도생활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들려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 진리는 높은데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다 보이는데서 공공연히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렇게 공집회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누구나 다 받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서 삽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이럴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 들이면 지혜를 얻거나와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지혜는 선택되 가장 선택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인생의 기로에 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시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 겔간 선교사님을 통하여 인도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8 : 12)

분별력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를 갖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지혜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머리를 좋게 하십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명철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갖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책략을 가지고 처신을 잘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명철로 길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귀의 계계를 효과적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엇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보화요 재산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생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둘째, 마음이 홀륭해 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것, 영혼을 파괴시키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과 걱정을 미워하게 되고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사회를 다스리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재판관의 지혜가 생겨 모든 사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혹 지식은 없을지 모르나 지혜의 신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넷째, 참복을 받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만나가 됩니다. 부귀가 옵니다.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소득은 천은보다 낫습니다. 재물을 주시되 겨우 쓸만큼이 아니라 곡간에 채울 정도로 주십니다.

****** 세상을 바로 보는 분별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명철은 분별력이요 명철은 지혜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기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분별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아오니 분별력을 주옵소서 박행렬 선교사님을 통하여 서사모아에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8 : 22)

영원과 시간 영원과 시간 속에 계신 지혜의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첫째, 지혜는 태초이전에 존재했습니다. '나를 가졌으며'는 낳았다는 말이며 낳았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 이전에도 있었고 종말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시간 세계는 끝이 날지 모르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화의 시작'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이성이며 초월적인 원인입니다. 태초이전에 계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이 매우 신비하고 거룩하고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과업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 전에 계시면서 시간 세계가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셨고 또 그것이 계속되어서 과업을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는 일에 지혜가 동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움직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구원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게도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시고 어려운 지경에 끌어넣기도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줄에서 한 순간도 우리의 시선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읽는 눈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훈계를 들으라, 영원한 샘물을 마시라. 지혜의 호소를 귀로만 듣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복자가 됩시다.

기도 창조와 섭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유행세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본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9 : 4)

은혜의 부르심 잠언 기자는 지혜를 도량이 넓은 여왕에 비유를 했습니다. 도량 넓은 여왕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이 관대하고 폭이 넓고 모든 면에 아량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첫째,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부르십니다(1-2절). 지혜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 준비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일곱기둥을 다듬과 짐승을 잡고 상을 베풀고 향연을 베풀면서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너희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깊이 하고 찾고 만나게 될 때에 마련해 놓으신 음식을 정말로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배불리 먹일려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부드러운 마중입니다. 초대의 대상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없는 자이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연을 베풀어 놓고 똑똑하고 지식많은 사람만 오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뻔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와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교제를 끊으라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명철의 길을 행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의 길을 택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떠날까 울고만 있지 말고 이미 회개한 것으로 끝을 내고 선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나쁜 교제를 끊고 생명을 얻어야 되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 완전한 준비의 부르심과 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며 악을 끊고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명철의 길로 걸어갑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집 빨리 지어 소외당한 자 돌보게 하옵소서.

[지혜있는 자를 책망하라](9 : 8)

훈계의 가치 훈계를 통해서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훈계를 듣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고하고 권계하고 권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일을 싫든 좋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을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 기도하거나 사람 앞에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진실한 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책하는 일과 바르게 힘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채찍을 들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눈물로 훈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훈계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훈계하고 징계 하는데도 때를 따라 해야지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하면 안됩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전하는 것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훈계를 할 때에는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는 훈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능욕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징계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흠을 잡습니다. 똑 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으나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징책의 말씀으로 들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와 종을 조롱하고 학대하며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므로 돼지 앞에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해야 할 곳에서는 입을 다물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둘째, 훈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진주의 값을 아는 사람이 진주를 받았을 때에는 진주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고 바로 사용할 터이니 지혜가 더해집니다.

****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좋아합니다.** 나는 완전하니까 훈계가 필요없다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므로 지혜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과 장수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 너무 완악하여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 되게 마시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복지 마을 건립과 선교센터 건립을 이루어 주소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9 : 13)

미련한 자 초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초대를 받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를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늘 소란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 대접을 받으며 남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 결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유혹자가 당하는 유혹의 내용입니다. 금지된 욕망의 쾌락은 규정된 허락받은 사랑의 즐거움보다 더욱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는 소득보다 부당하게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땀흘려 얻은 소득을 감사하기 보다 길가다 줏은 것을 더 기뻐합니다. 몰래 먹고 숨어서 먹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유혹의 결과는 멸망의 도상에 서게 됩니다.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환란과 모든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 혼자는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이 대장되셔서 싸우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가고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됩니다. 유혹은 꼭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살피며 유혹이 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에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하늘로 피해도 땅속 깊이 숨어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한시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 유혹을 면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충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10 : 1)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몇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선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에 병들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복이 내게 오는 것 같으나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막거나 어렵게 만들면 행복으로 화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그 구별은 또한 부모를 기쁘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잠언이 주려고 하는 뜻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마음에 근심을 더하게 한다면 미련한 자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렴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청렴결백한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는 모든 번영의 기초입니다. 인생이 번영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길로 가면 됩니다. 물질적 영적 번영의 기준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혼이 기쁘고 감사해야 영적인 감격을 갖고 살면 육신의 질병은 들어왔다가도 도망 갑니다. 영혼이 괴롭고 찌들면 건강하던 육신도 금방 병들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므로 의롭지 못한 소득은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인앞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얻은 것 이상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 교회의 상징마크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향상을 가져 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날마다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10 : 7)

무언의 명언 후대에 까지 널리 자랑스럽게 빛나는 이름이 있는
가 하면 마치 무덤에서 시체가 썩듯이 시간이 가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악취가
나는 이름들도 땅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네
로 황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명으로 남은 이름을 자녀들에
게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
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들은 작명가를 쫓아 다니며 좋은
이름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좋아서만 안되고 인
격이 훌륭해야 이름이 아름답게 보전됩니다. '의인을 기념한
다'는 말은 '의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유
익은 첫째, 살아있는 의인에게 힘을 더해 줍니다. 히11장2절
에는 선진들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얻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등 믿음으로 산 자들은 아름다운 이름이
소문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
입니다. 밑없는 꽃이 말을 주고 있듯이 무덤앞에 가서 설때마
다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바람소리 밖에 들리는 것이 없지
만 비석에 새겨진 이름 석자를 보고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
니까. 둘째, 애도하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상한 인격으
로 잘 산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줍
니다. 고통스러운 후회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을 남기
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선한 자들을 명예
롭게 만들고 그분 이름때문에 가족이 명예로워집니다. 그러
나 악인의 이름은 썩습니다. 썩는다는 말은 망각된다는 말입
니다. 악인의 이름은 아무리 높이려고 하고 새기려고 해도 결
국은 무덤에서 시체가 썩듯이 썩고 말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
한 생활의 완성은 곧 남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입니
다.

※※ '나를 따라 오라'고 무언의 명언으로 호출할 수 있는 이
름이 의인의 유산입니다. 무덤에 묻혀서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의 사람입니다. 썩어버릴 악인의 이름의 소유자
가 되지 말고 영원히 기념되는 의인의 이름의 소유자가 됩시
다.

기도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죽어서도 유익이 되게 하
옵소서. 복한 땅에 하루 속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10 : 11)

생명 샘 잠언 10장은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많은 장절 가운데서도 특히 잠언의 특성이 그러한 것처럼 맺구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의인과 악인의 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조심하도록 수차 여러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언어는 의사 전달 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말이기 때문에 특히 말을 잘 활용해야지 말을 잘못 활용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큰 일이 납니다. 우매한 사람은 입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입이 미련한 사람은 헛소리 잘하고 빈말, 뜻도 없는 말을 잘합니다. 말은 소리와 다릅니다. 뜻이 없는 말을 지껄이는 사람을 헛소리 한다고 합니다. 입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악의에 찬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샘은 갈증을 풀어줍니다. 갈한 영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인의 샘입니다. 의인의 샘에서 샘물이 나오면 갈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메마른 심령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의인의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뿜습니다. 독을 뿜어내는 악인의 입과 생명샘이 되는 의인의 입이 무엇이 다르니까. 악인의 입은 단물을 내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을 죽이는 독물을 뱉니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자는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다 뱉어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간질, 거짓말이 다 미련한 자의 소위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을 풍부하게 할 가치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남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유쾌하게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 갈한 땅에 물을 주어 비옥한 땅을 만들듯 우리의 입술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충현의 가족들은 말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10 : 23)

지혜의 즐거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여호와와 복은 또한 즐거워 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지 않고 지혜를 얻는 것을 즐거워 합니다. 한국만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는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 보다 자식들에게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 귀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황금이 아니고 지혜를 얻을 때, 믿음을 얻을 때가 즐거움의 근원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성공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셋김을 받지 못한 채로 죄를 가지고 혹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될 때 고난도 시련도 우리를 넘어 뜨리거나 흔들지 못합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뒤흔박의 바람이 오고 갑자기 사고가 생길 때에 꺾질만 남은 악인들은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습니다.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 필요한 신학은 변영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입니다. 지금 아시아 제국이 큰 고통 속에 있으므로 복이나 받으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이들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저항하지 않고서는 아시아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비결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 여호와와 복을 받는 것이 생의 비결이요, 즐거움의 근원은 지혜입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의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지혜로 즐거움의 근원을 삼게 하시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 : 1)

공평 사람의 길은 두가지 입니다. 영화로운 길과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영화로운 길이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란 자칫하면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거래, 사회생활에서 정직과 공평의 원리를 중요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사는 전 삶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장사를 하고 결혼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자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이 말씀은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고 공평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 대상입니다. 교인들도 공평하지 못한 교역자에게 화를 내고 국민들도 공평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민주화를 한다고 들고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평을 상실한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공평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똑같이 하는 것이 공평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경력을 따라 그에 맞게 대우를 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므로 낮아 집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분수를 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의 옷을 입은 모습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입장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빌 2장).

**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 강도는 버림을 받게 되고 정당성을 포기한 강도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겸손한 자로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기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정당성도 주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한국의 온 교우들이 겸손으로 웃입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11 : 3)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영화로운 길을 가고 사특한 자는 수치스러운 길을 갑니다. 사특한 자는 불성실한 사람,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의로운 척합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사특한 자가 가져오는 길은 패망 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사울입니다. 홀로했던 사울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특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사람은 안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금은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 하십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정직한 자의 대표입니다. 이 세는 재물과 의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고 돈이 양반이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세상 재물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의리는 큰 유익을 줍니다. 단순한 의나 도덕적인 선을 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 특히 구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세가지 중요한 천국백성의 행동원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기도, 금식, 구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금식은 자기 정전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입니다. 특히 구제를 말씀하신 것은 의리를 잘 지키면, 사랑을 베풀고 의를 잘 행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내이름이 쌓여지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 의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괴로워도 외로워도 정직한 길, 성실한 길,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갑시다.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심취하지 말고 사특한 자의 패역한 길로도 가지 말고 의리를 좇아 삽시다.

기도 사특한 자의 길을 벗어나 영화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충현의 성도의 의가 정오의 해같이 비치게 하옵소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11 : 8)

영생의 소망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팔순이 된 할아버지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다 가져야 되고 희망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는 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마지막에 가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음이 닥쳐오게 되면 악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소망이 끊어지므로 죽음 앞에 오면 절망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오면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낙심 밖에는 올 것이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다보니 죽음 앞에서 물질을 들고 죽음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소망으로 삼다보니 명예를 안고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소망삼고 살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니 쾌락을 안고 죽음고개를 넘어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원하고 바라던 모든 소망이 죽음 앞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소망은 끝납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오히려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로부터 소망없는 사람들 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는 소망이 있고 영광의 소망, 금면류관의 소망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악인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의인은 모략과 중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인에게 화살이 많이 쏘힙니다. 과수원에 제일 잘 익은 과일에 새들이 먼저 와서 쪼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영근 곡신단에 악한 모략과 중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건짐을 받을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 구제나 선물의 효과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의 충고와 암시는 깊이 들어간 마음 속에서 썩어나고 열매가 맺어 효과가 장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지혜로운 말로 도와 줍시다.

기도 우리의 허를 학자의 혀같이 하신사 남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줄을 알게 하옵소서. 금년 한해를 승리케 하신 아버지께서 내년에도 승리케 하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민나 • 1989년 12월호 • 등록번호 / 제9 - 110호 (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운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 - 4181 - 3)